

하천 트레킹 체험의 환경교육적 의미

최수경¹ · 이재영^{2,†}

¹대전충남녹색연합 · ²공주대학교

Meaning of Stream Trekking Experience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Su Gyeong Choi¹ · Jae Young Lee^{2,†}

¹Green Korea · ²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participant's recognition about and meaning of stream trekking activities by analyzing their reports after visiting Gungang, which was a kind of field experience combined with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In addition, this work suggested a few points that might help improve trekking programs, trail establishment and the overall field activities along the river.

Eighty reports were collected from the participants who had joined in the Gungang trekking programs organized by both Green Korea United in Daejeon and Gungang Basin Environmental Office of Korean EPA. A database of texts in the reports was created for the preliminary analysis and then the results were further examined in a qualitative methodology.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demonstrated that before experiencing the trekking activities in the Gungang, many participants seemed uninterested in a river itself, objectified it, or simply recognized functional roles. It is found that most participants preferred crossing rapids to other activities. Crossing rapids has the eleven positive aspects as follows. First of all, crossing rapids is fun and scary experience at the same time. Secondly, it is painful, but makes people feel happy ironically. Third, rapids themselves make people reminisce about their childhood and feel freedom. Fourth, they make people feel comfortable. Fifth, crossing rapids is addictive. Sixth, rapids have life. Seventh, people can learn how to adapt to nature through the experience in them. Eighth, they can make people cooperate. Ninth, they can make people recollect their old friends. Tenth, people can extend their experience near rapids to rivers. Eleventh, they can make people reflect themselves.

There ere three remarkable findings about experience in rapids. Crossing rapids was an activity that most participants preferred and could make the goal of trekking in the Gungang effectively achievable. By crossing rapids participants can understand both lively and painful parts of the river. Participants think tour guide was an essential part to trekking along the Gungang.

Key words : trekking, river, experience, interpret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만들게 되었다. 성장 패러다임에서 생태 패러다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 keep@kongju.ac.kr, Tel : +82-41-850-8815, Fax : +82-41-850-8810

임으로의 변화는 대중관광의 흐름 또한 변화시켜 친환경적인 관광, 즉 생태관광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태관광은 자연보호를 연결시키는 관광으로서 관광 자원의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 보호와 자연 보전을 고려해 관광 자원 및 환경의 보존과 이용, 경제적 편익 등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 관광 활동이 나아가야 할 이상적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태관광은 환경적 책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최근 생태관광의 유형인 도보여행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전 국토에 걸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해지면서 테마가 있는 이야기 길과 이를 이용하는 걷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탐방로의 조성은 길 자체를 주요 자원으로 하다 보니, 길의 복원을 위한 자원 개발과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의식이나 태도의 변화 없이 이용하다 보니,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곳이라 해도 대중 관광지보다 못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강신겸(1998)은 생태관광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관광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며, 생태 관광지는 일단 관광객에 의해 훼손되면 그 지역은 일반 관광지보다 복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경고하였다. 때문에 생태관광지의 자연, 문화, 환경의 보전과 유지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의 의식 제고에만 기대기보다는 자연 보전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금강은 대규모의 공간적 범위 안에 다양한 자연환경 요소를 보유하고 있고, 강길, 옛길, 산길 등을 주요 자원으로 하는 5대강 강길 탐방로의 복원과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강 길을 걷는 탐방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금강 길 걷기가 자연 보전과 환경적 책임을 지는 생태관광으로서의 도보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적 요소가 접목되어야 하고, 강이라는 특수한 환경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효과적

인 체험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금강 전 구간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강 길을 걸으면서 환경 감수성 증진에 도움을 주는 강 길 걷기 구간의 설정과 다양한 강 체험 활동을 접목한 해설이 있는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가 금강과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경험하고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금강이라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강 트레킹에 참여한 사람들의 금강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하천 체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형 환경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생태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길 걷기 여행의 운영과 생태탐방로 조성, 체험형 환경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금강을 장소로 하는 강 길 걷기 프로그램에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한 후, 이용자들의 후기를 분석함으로써 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강 체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3. 용어의 정리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트레킹(Trekking)

걸으면서 관광을 한다는 의미로써 도보여행(walking-tour)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나. 여울

강의 바닥이 얇고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으로 낙차에 의해 기포가 터지면서 물속으로 산소가 공급되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곳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트레킹(Trekking)의 의미와 쟁점¹⁾

여행의 정의는 목적이나 동기와 관계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행은 이동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하는 통속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관광은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여행자를 관광자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여행과 관광은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관광을 여행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 트레킹의 의미

사전적 의미로 도보는 탈 것을 타지 않고 걸어간다고 정의하고 있다. 걷기라고 하면 트레킹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는데, 트레킹의 어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비롯되었으며, 정처 없이 이동하는 여행을 의미하는 ‘trek’에서 유래되었다(박영아와 현용호, 2009). 도보여행이 대중화된 기원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300년 동안 프랑스 남부의 소도시들이 교회, 성당, 수도원을 순례 여행하는 데서 비롯된다(Amato, 2006). 현대에 와서는 산과 들을 느릿하게 걸으면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히말라야·안나푸르나 등 고산에서 정상 등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야영 숙박을 하며, 정상 주변에 있는 오솔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레킹을 걸으면서 여행을 한다는 의미로써 도보여행(walking-tou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나. 트레킹의 활성화

최근에 걷기는 도보여행, 트레킹 특히 산다이고 데 콤포스텔라 같은 옛 순례길에 대한 관심 등으로 표현되며, 여가활동, 자기 확인, 고

요함, 침묵, 자연과의 접촉과 결합해 그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Le Breton, 2000). 걷기는 가장 인간적인 몸짓으로 걷는 동안 인간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하여 혹은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Barthes, 1957). 따라서 바쁜 일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걷는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향유이며, 현대성으로부터의 탈피로서 삶을 질러가는 지름길이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에 알맞은 방식인 것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행 문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역사문화유적과 자연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은 이동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차량이 아닌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탐방하는 것이다.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자는 웰빙(well-being) 열풍과 함께 슬로우 라이프(slow life)를 지향하면서 느리고 여유 있는 삶에서 전통과 문화와 환경의 가치를 되찾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도보 여행에 관한 논문이 미미한 상태이며, 국외 논문으로는 트레킹 관련한 소수의 논문을 찾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개인이 트레킹하는 동안 거리 및 속도, 기간 그리고 멈추는 횟수 등이 얼마인지를 관찰한 연구 노트(Keul & Kuhberger, 1977)와 모험 관광의 관점에서 트레킹을 하는 관광객의 행동을 묘사한 연구(Gyimothy & Mykletun, 2004)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아와 현용호, 2009).

다. 탐방로 조성정책

문화체육관광부(2008)는 도보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여행 문화의 창출, 친환경 관광 상품의 확충을 위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1) 트레킹(trekking)과 유사하게 쓰이는 말로 탐방로(trail)가 있다. 트레킹(trekking)은 ‘느리지만 힘이 드는 하이킹이라는 탐방 활동의 한 형태로서, 등반과 하이킹의 중간 형태이다’라고 한다면 탐방로(trail)는 탐방이라는 활동 전반을 위해 만들어진 통로를 뜻한다. 미국의 산림학자 Makaye가 그의 저서 ‘The Appalachian Trail’에서 탐방로는 차가 없는 길, 마음의 길, 발견하는 길이라 하였듯이, 탐방로는 그것이 제공하는 경험 자체가 특이한 의미를 지닌다(Jubenville, 1976; 박석희, 2007 재인용).

과 문화 역사 자원을 특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 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 중심의 길'인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천릿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별로 테마와 특징이 있는 17개의 탐방로를 선정하였고, 슬로시티(slow city)²⁾에서 6개의 길을, 아름다운 순례³⁾에서 10개의 순례 길을, 그 외에 강원 충청 영남 호남의 권역별 이야기길, 서울의 생태문화길,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전국 해안누리길 52선, 산림청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임도 100선 등이 있다.

'길' 자체를 주요자원으로 지역별, 권역별로 생태 문화 역사 등 특화된 주제를 발굴해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7년까지 일천억 원을 투입해 삼천리에 해당하는 1,200km의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길의 공간 범위는 옛길, 4대강, DMZ, 백두대간, 남해안권 등 우리 국토의 선형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탐방로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길을 활용하거나 옛 길을 찾는 등 자연, 문화, 환경에 대한 보전 관리와 콘텐츠 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2008)에서는 '생태문화탐방로'를 '생태 및 문화탐방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보 중심형 길의 기본 유형은 산지 위주의 산길과 숲길, 생태탐방로는 하천 위주의 강길 등 8개로 나누고, 탐방자원의 가치와 전국적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급, 광역급, 지역급의 3등급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는 길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된다. 전국 단위의 생태탐방로는 5대강(낙동강, 영산강, 한강, 금강, 섬진강)과 영남대로, 삼남대로 등 옛길과 해안 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며,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특수성을 살려 테마 형으로 조성된다. 생태탐방로는 정상 등반 위주의 산행이나 마루 금을 종주하는 트레킹 행태의 레저 행태를 바꿔, 가족 단위로 시간을 갖고 걸으면서 자연, 역사, 문화를 배우고 즐기기 위한 시설이다.

라. 탐방로 이용의 문제점

다양한 길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탐방로가 만들어지지만, 자연과 문화를 이용한 탐방로 조성여 여러 가지 순기능을 기대하면서도 길의 복원이 오히려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이는 생태관광의 목적 중 하나인 자원을 보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려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최영국과 임상연, 2005).

따라서 이러한 단기간의 급성장은 오히려 '무늬만 생태관광'의 문제를 초래했고, 이론적으로는 생태관광 개념의 혼란을 초래했다(김성진, 2002).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처럼 기존의 대중관광에서의 자연 훼손이나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의 발전적 진보적 개념으로 생태관광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의 무조건적인 모방 도입으로 인해 정확한 개념조차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어 기존의 관광과 별 차이가 없으면서 생태계 훼손을 정당화하고, 그런 훼손에 면죄부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나윤중 2000; 김유희 1995; Sirakaya *et al.*,

2) 슬로시티(slow city)란 1999년 10월 이탈리아의 몇몇 시장들이 모여 위협받는 la dolce vita, 즉 달콤한 인생의 미래를 염려하여 슬로시티운동을 출범시킨 이래 느리게 먹기와 느리게 살기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로고마크의 상징은 마을을 등에 지고 가는 느림의 대명사 작은 달팽이다.

3) 아름다운 순례길이란 전라북도 내 펼쳐진 전통문화의 역사현장을 도보로 돌아보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웃과 삶의 의미를 찾는 여행으로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에서 참여하여 대표적인 종교사적지를 돌아보는 문화 체험이다.

1999).

2. 트레킹과 환경해설

가. 환경해설

해설(interpret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자원의 의미와 가치를 해설하여 청취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써 밝히는 행위이다. 방문자에게 방문하는 지역과 방문지의 흥미로운 소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통해 대상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일반의 정보 서비스와 차별화될 수 있다. Aldridge(1972)는 환경해설이란 방문자에게 그가 있는 곳을 설명해주는 기술이면서 방문자로 하여금 환경의 상호관련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환경 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 주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Wallin(1965)은 환경해설이란 환경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복잡성, 다양성 그리고 상호 관련성을 느끼는 민감함, 경이로움 내지는 호기심 등을 환경해설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문자로 하여금 느끼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며, 방문자가 처음으로 찾아가는 환경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방문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이주희와 박정아, 2010). Sharpe(1982)는 해설서비스는 메시지 전달이나 매력물에 대해 경험을 시키는 활동이라고 하여, 방문객이 방문하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해 인식능력, 감상능력, 지식습득능력, 이해능력을 증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해설서비스는 특히 생태관광과 같이 배움과 경험이 중시되고 자원의 보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 관광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Tilden, 1997; Moscard & Pearce, 1996). 또한 Tilden(1957)은 환경해설 또는 자원해설이란 단순히 사실적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의 목적물을 보여주며, 직접 경험을 통하거나 또는 적절한 매체를 통하여, 현상에 내재된 의미

와 관련성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교육적 활동이라 하였다. 또한 Sharpe(1982)와 박석희(1999)는 지각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으로서 새로운 이해, 통찰력, 열광,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설득 커뮤니케이션과정이라고 했다. Veverka(1994)는 환경해설의 전달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용어로부터 방문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방문객에게 정보를 해설해주는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였다.

나. 해설의 기대효과

방문객에게 방문지와 연계된 정보를 제공하는 해설서비스는 참가자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문요소라 할 수 있다(Sharpe, 1982). Moscardo(1996)는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해설서비스는 관광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습을 증진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자원해설의 제공으로 인해 관광객들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교육적 측면이 향상되며, 방문에 대한 만족은 커진다고 지적하였다. 즉 전달수신자의 인식을 강화 혹은 지각을 새롭게 해주는 인식 향상적 활동이며, 교육적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은 방문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지각수준을 향상시키고 방문전반에 대한 경험의 만족을 크게 할 수 있다(박희주, 2005).

박석희(2005)는 태도변화로 표현되는 해설서비스의 기대성과를 Sharpe(1982)의 정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방문하는 장소 및 대상에 대한 방문자의 지각능력, 감상능력, 이해능력을 향상시켜 관광대상물에 대해 더욱 풍부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박희주와 박석희, 2002; 박석희, 1999; 이명진, 1998; Lewis, 1980). 둘째, 관광지의 자원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 해설서비스를 통해 자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원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양하는 성과가 있다(박희주와 박석희, 2002 등). 셋째, 관리당국이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박석희, 1999; 엄서호, 1999).

다. 해설을 통한 트레킹의 의미 강화

해설 서비스의 경우는 똑같은 해설가에 의해 같은 해설을 청취하는 경우에도 관광객 당사자가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해설참여의 동기, 참여자의 능동·수동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 자원에 대한 인식이나 해설과 함께한 관광 경험의 만족이 다를 수 있다(Applbaum 등, 1969). 마찬가지로 진실성과 전문성 그리고 능력 등과 같은 해설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만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박희주(2005)는 해설가에 관한 척도 개발 과정에서 해설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전문성, 신뢰성, 외적 호감성으로 구성된 개인 속성 요인과 진행 능력, 매체 활용 능력, 분위기 조성 능력으로 구성되는 현장 능력 요인으로 구분해 나타냈다. 따라서 ‘걷기’라고 하는 활동에 매몰되기 쉬운 트레킹에 환경해설가가 참여하여 걷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체험에 맥락을 밝혀주고 주제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 체험은 더욱 의미있는 과정이 된다.

해설서비스는 특히, 생태관광에서 배움과 경험이 중시되고 자원의 보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 관광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Tlden, 1977; Moscardo & Pearce, 1996), 환경해설이나 하는 교육적 요소가 강한 활동과 트레킹이라고 하는 관광, 여가적 요소가 강한 활동을 결합함으로써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달성할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생태관광 역시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그 가치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 방법

1. 트레킹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가.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 배경

금강 전 구간을 교육의 장으로 하여 금강 유역권 내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금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물 환경 의식을 고취하

기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하던 바, 금강을 구간으로 나누어 걷는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허진숙과 이두곤(2007)은 ‘물 환경교육에서 물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함양하기 위해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유역은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환경교육의 통합성을 구체화할 수 있고, 나아가 일상성과 지역성 그리고 자기환경화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역 중심의 물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금강 트레킹은 접근성이 차단되어 이미지화되어 있던 강으로 최대한 가까이 들어가 강이 만들어낸 다양한 강바닥의 재질과 강 환경을 경험하면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역동하는 강, 그곳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들을 통한 생명이 살아있는 강, 강 주변 마을의 강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낸 강을 느끼게 하자는 기획이다. 그간에 갖고 있던 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의미 있는 강 체험 활동을 통해 강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걷기 여행과 생태탐방로 조성, 체험형 환경교육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나. 금강 트레킹의 주안점

첫째, 금강 트레킹을 통해 대규모의 공간적 범위와 다양한 자연 환경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는 금강을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한다. 금강 트레킹은 다양한 강 체험 활동과 참여를 통해 오감을 활용한 자연과의 교류를 이룰 수 있을 뿐 더러 고유한 풍습과 생활 방식 등 역사와 문화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

둘째, 금강 트레킹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유형인 감수성 증진 활동, 만들기 활동, 생활 체험 활동, 학습 활동, 실천 활동, 탐사 활동, 놀이 활동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셋째, 참여자의 환경 의식과 프로그램이 환경을 얼마나 고려하느냐의 의도에 따라 강길 걷기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생물들과 환경의 오염 및 훼손 현상은 그 의미가 대상화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금강 트레킹 운영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은 금강 총 연장 400여 km 가운데 경관 생태적, 역사 문화적, 개발 현장을 포함하여 교육적 효과가 있는 곳을 대표적으로 12구간을 선정하며, 각 구간은 지형적 생태적 여건에 맞게 계절과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안배한다.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구간을 지형적 여건을 활용하여 동선을 기획해 하루 최장 6~10km 가량 걷는 동안 환경감수성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접목했고, 이를 위한 세부 활동은 사전 답사를 통해 점검 적용한다. 또한 금강트레킹은 해설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동행하는데, 구

표 1. 금강 트레킹 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감수성 증진 활동	접촉하기 맨발로 여울건너기, 맨발로 모래밭이나 자갈밭, 흙길 걷기, 강변 풀숲 헤치고 걷기, 낙엽 밟으며 걷기, 야생동물의 길 걷기, 강가에 누워 햇볕 쬐이기, 강물에 몸담구기
	맛보기 오디와 산딸기 따먹기, 시냇물 먹어보기, 발원지 물 먹어보기
	소리듣기 여울소리 듣기, 새소리 듣기
	보기 경관 보기, 강변에서 풀 뜯는 황소 등
	냄새맡기 비온 뒤 숲의 향 맡기, 꽃과 나뭇잎의 향 맡기, 퇴비 냄새 맡기
만들기 활동	자연을 소리로 한 악기 만들어 연주하기(버들피리, 갈피리, 풀잎피리). 가을논둑에서 짚풀로 새끼 꼬아보기
생활 체험 활동	상류생태체험마을이 제공하는 점심 먹기, 장수 천천리 하늘내들꽃마을, 진안 가막리 상가막마을, 무주 무주읍 대소마을, 무주 무주읍 뒷섬마을, 금산 수통리수통마을, 영동 수두리 비단강엄마손밥, 옥천 지수리 배바우마을, 청원 소전리 벌랏마을, 옥천 안내리 안내마을, 익산 성당리 성당포구마을 등
탐사 활동	금강트레킹에서는 장수 발원지, 진안 죽도계곡, 금산 방우리라 천내리 습지, 무주 반딧불이 서식지, 무주 물길에 간혀 나무나 고개, 버룻길로 소통해야 했던 옛길, 대청호수에 갇힌 오지마을, 합강리 철새도래지, 부여 백마강길 백제 유적지, 4대강 보 설치지역, 서천 신성리 갈대밭, 익산 나포 철새탐조지 등. 정자나 산성에 올라 강 내려다보기, 갈대밭 사이 통과하기, 나룻배로 여울 건너기, 배를 타고 대청호 둘러보기, 임도 따라 걷기
실천 활동	생태교란종 가시박 제거활동, 하천쓰레기 제거활동, 개인컵 사용, 대중교통이용, 쓰레기 되가져오기, 하천쓰레기 수거활동,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생태보전지구 개발행위에 대한 정책제안 및 대응활동
학습 활동	야생동물 동물의 발자국이나 똥 찾아보기(수달, 삿,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기러기, 물떼새 등)
	식물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애기똥풀 노란물 손톱물들이기, 봄에 꽃길을 만드는 꽃들(벚꽃, 복사꽃, 조팝나무꽃), 계절 야생화 및 나무열매
	조류 제비집 관찰하기, 겨울철새 탐조, 새의 등지관찰, 자갈밭 물떼새의 의태 관찰, 다양한 조류(맹금류, 딱따구리, 어치,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물까치 등)
	어류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 관찰, 상류에서 물고기채집관찰
	석패류 물속에 다슬기 및 다양한 석패류 관찰(두드럭조개, 말조개, 귀이빨대칭이 등)
물속생물 발원지에서 1급수 지표종 찾기(엽새우, 날도래, 가재), 여울에서 수서곤충의 우화한 흔적 찾기, 물웅덩이에서 연가시 관찰, 우렁, 달팽이 관찰 등	
곤충 모래밭에서 개미지옥 관찰, 벧나무에 매달린 하루살이 관찰, 짝짓기 후 죽은 하루살이 무덤 관찰, 걸으면서 길앞잡이 관찰	
양서류 개구리와 도롱뇽의 알 관찰, 무당개구리 짝짓기 관찰, 여울 속 물뱀 관찰	
밀렵 로드킬 평이나 기러기 사체, 털가죽이 벗겨진 고라니, 엽탄, 뱀이나 야생동물의 밀렵도구들, 로드킬 현장	

성 인원은 1인~4인까지 트레킹 참가자의 인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 지도자는 총괄 진
행과 대상지로 가는 동안의 버스 해설을 통해
금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조 지도자는 트레
킹의 특성상 선형으로 줄을 지어 가기 때문에
선두 해설과 중간 열 사이사이에서 각각 해설
을 담당한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 표본으
로 금강 트레킹 참가자의 후기를 수집했다. 금
강 트레킹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일원의 단
체를 통해 정기 행사 혹은 기획 행사로 2009년
부터 2011년 5월 현재까지 50회 이상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2009년부터 2011년 5월
현재까지 연중 지속적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대
전충남녹색연합과 금강유역환경청 참가자 후기
들로 표본을 수집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환경단
체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2개의 코스로
구성된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에 2회 이상 참가
한 사람들이며 연령대는 주로 40대 이상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09년부터 2011년 5월
현재까지 총 24회 진행되었고, 1회 평균 참가자
는 24명으로 총 600명이 참가했다. 금강유역환
경청은 2010년부터 2011년 5월 현재까지 총 15회
진행되었고, 1회 평균 참가자는 40명으로 총
600명이 참가했다.

사전 연구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 3월
까지 금강 트레킹 주관 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
합과 금강유역환경청 트레킹 참가자들이 자율
적으로 기고한 후기들 가운데, 서술형 문장 후
기 40매를 표집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표본의 코딩작업과 범주를
정한 후, 다시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에 걸쳐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금강 트레킹 3회
이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후기를 요청하여 40
편을 추가 수집하였다. 1차 수집본 40편은 초
기참가자 후기 10편, 2회 이상 재방문자 후기
30편으로 이루어졌고, 2차 수집본 40편은 모두
3회 이상의 재방문자 후기로 이루어졌다.

3. 내용 분석

내용분석은 타당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수
집된 표본들을 일정한 범주로 분류하고, 그 분
류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추
론해내는 사회 조사 방법의 한 가지이다(오익
근, 2000). 본 연구는 후기의 텍스트를 양적 자
료화하고, 이를 내용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후
기의 텍스트를 내용 분석함에 있어 빈도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결점을
보완하고자 했고, 내용분석을 위한 일반적 방
법으로 특정 단어의 사용빈도를 파악했다. 내용분
석과 같은 질적 연구는 양적 방법에서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관광지에 대한 전체적이고 심리적
인 인상을 밝혀낼 수 있어 통합적인 측정이 가능
하다(Choi *et al.*, 2007; 강숙영 등, 2007 재인용).

가. 양적 분석

1차에서 수집된 40개의 표본 후기의 텍스트
를 엑셀로 양적 자료화하고 범주를 정하기 위
한 코딩 작업을 거쳤는데, 코딩은 연구자를 포
함해 금강 트레킹에 5회 이상 참석한 참석자들
로 구성된 총 3인이 담당하였다. 코더는 코더
들의 분석 능력을 높이고자 연구자와 함께 일
정 시간 코딩 연습을 하였다. 처음에 6개의 후
기를 통해 분석 유무를 정하는 연습을 하는 동
안, 불명확한 분석 유무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고,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 다시 3
개의 후기를 분석하였다. 입력 코더에 따라 객
관성이 높은 항목에서는 100%일치도를 보였으
나, 주관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서도
상호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명사, 형용사 및 형
용 동사로 구성된 최종 이미지 세트를 얻었다.

이후 2차 수집된 40개의 표본 후기를 포함하
여 총 80편의 후기를 각각 상류와 하류의 범주
별로 구분하여 상위 100개 단어로 코딩했으며,
코딩된 데이터는 양적 분석을 위해 한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류와 하류는 대청호를 중심으
로 나누었는데, 상류는 장수, 진안, 무주, 금산,

영동, 옥천을, 하루는 청원 대전 연기 공주 부여 청양 서천 익산의 구간에 대한 금강 트레킹 후기를 나타낸다.

나. 질적 분석

양적 분석을 통해 얻어진 키워드들은 질적 분석을 위한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드러난 키워드들을 유념하면서 다시 80편의 후기를 읽고 트레킹 체험의 의미를 시간적(과거-현재, 반복체험), 공간적(상류-하류), 관계적 측면(참가자와 참가자, 해설가, 주민, 생물 사이의 관계)에서 재확인함으로써 의미의 유목화, 범주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난

글을 분류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의미들 사이의 위계적 구조나 관계를 재구조화하고 특히 하천 트레킹 체험의 가장 심층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예비분석 결과

가. 참가자의 선호

표 2에서는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을 통해 걸어가는 다양한 길의 유형을 10위까지 정리하였는데, 참가자가 가장 선호하는 길은 여울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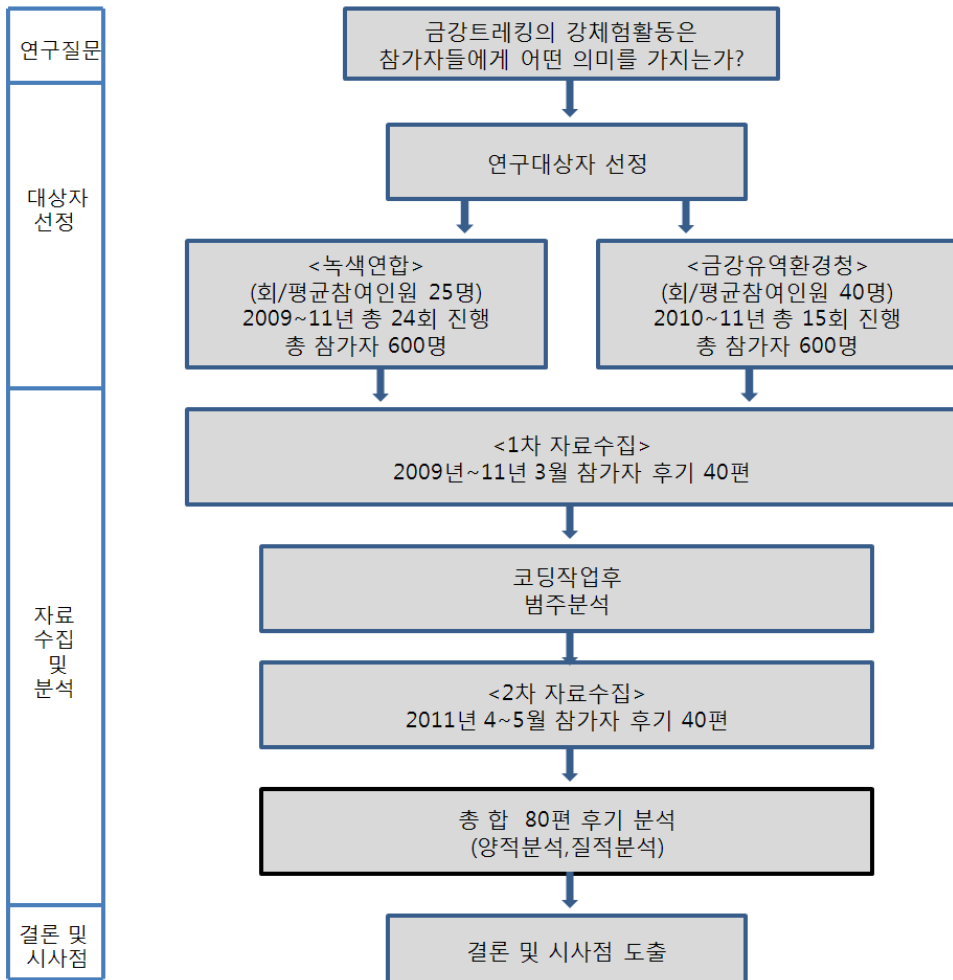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표 2. 참가자가 선호하는 길의 유형

순위	길의 유형	통합 횟수	상류 순위 (횟수)	하류 순위 (횟수)
1	여울	87	1(66)	1(21)
2	물길	57	2(38)	2(19)
3	강길	30	4(17)	3(13)
4	벼랑길	28	3(18)	4(10)
5	산길	20	5(12)	5(8)
6	흙길	20	6(12)	6(8)
7	꽃길	11	8(6)	7(5)
8	마을길	9	7(7)	13(2)
9	오솔길	9	9(6)	11(3)
10	시골길	8	10(4)	8(4)

* 총 80편의 후기를 분석한 결과로서 글 속에 단어가 등장한 빈도를 나타냄.

타났다. 여울은 강을 건너는 이동로로서의 의미와 여울을 건너기 위해 강둑에서 내려가 여울에 접근하거나 여울을 건너고서 강둑으로 올라오기까지의 자연 요소들과 접촉하며 걸어가는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여울 다음으로 물길, 강 길 이 상위에 올라오므로써 모두 물의 근접 지대에서 걸어가는 것에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에 나타난 자연물의 이름을 정리하였는데, 강길 걷기 체험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자연물은 꽃, 나무, 풀, 숲 등 식물이 상위에 나타났다. 강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성을 반영하는 갈대, 고라니, 동물의 똥, 물고기, 조개, 다슬기, 미루나무, 연가시, 기러기 등 물가 생물이나 물속 생물 등 물과 관련한 생물의 출현 빈도가 상위에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연을 말할 때, 꽃과 나무와 풀이라는 대표적인 자연물 다음으로 생명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강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단어이다.

나. 참가자 활동

표 3은 참가자들이 금강 트레킹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한 단어의 빈도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강 길을 따라 선형으로 이동하며

표 3. 참가자의 활동과 형태

순위	활동과 형태	통합 횟수	상류 순위 (횟수)	하류 순위 (횟수)
1	걷다	202	1(99)	1(103)
2	흐르다	110	2(72)	3(38)
3	해설을 듣다	86	4(37)	2(49)
4	건너다	68	3(68)	29(0)
5	먹다	59	5(30)	5(29)
6	보다	52	7(20)	4(32)
7	기다리다	38	6(22)	9(16)
8	내려오다	26	12(11)	10(15)
9	손을 잡다	23	8(17)	18(6)
10	맨발로 걷다	21	11(14)	17(7)

* 총 80편의 후기를 분석한 결과로서 글 속에 단어가 등장한 빈도를 나타냄.

체험하는 활동임을 증명하듯 걷다, 해설을 듣다, 올라가다, 건너가다, 맨발로 걷다, 신발을 벗다 등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활동이 상위에 나타났다. 또한 건너다, 맨발 걷다, 발을 담구다, 벗다 등 물이나 모래나 흙 등 자연요소와 발바닥을 직접 접촉하는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참가자 인식과 태도

표 4는 참가자의 금강 트레킹 참가를 계기로 보여주는 전 후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으로 10위까지 순위를 정리했다. 켈러트는 자연에 대한 9가지 가치를 실용적 가치, 정복적 가치, 부정적 가치, 미적 가치, 인본주의적 가치, 상징적 가치, 과학적 가치, 도덕적 가치, 자연주의적 가치로 구분했는데, 대부분이 자연과 생물을 보며 느끼는 물리적 매력과 호소력에 편안함과 친근감과 즐거움을 주는 미적 가치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 여울 건너기와 같은 구체적 활동과 관련한 느낌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연에 대한 미적 가치와 더불어 자연에 대한 윤리에 관여하는 반성, 미안, 아픔, 슬픔, 부끄러운 단어들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개발과 오염, 훼손 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표출

표 4. 참가자의 인식과 태도

순위	인식과 태도	통합 횟수	상류 순위 (횟수)	하류 순위 (횟수)
1	아름답다	116	2(63)	1(53)
2	느끼다	109	1(73)	2(36)
3	멋지다	54	3(39)	8(15)
4	감사하다	48	5(31)	5(17)
5	소중하다	46	6(31)	10(15)
6	새롭다	41	9(26)	9(15)
7	한가하다	39	7(27)	15(12)
8	편안하다	38	4(34)	34(4)
9	다양하다	33	15(14)	3(19)
10	감탄하다	31	18(13)	4(18)

이었다. 특히 상류에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거의 없었고, 하류에서는 걱정과 반성, 아픔을 묘사하는 단어가 상위에 나타났으며, 자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배우는 단어도 상위에 나타났다.

2. 정성적 분석 결과

가. 트레킹 이전 강에 대한 인식

1) 유년의 기억 속의 만남

하천이 우리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생활 속의 하천을 경험한 사례다. 떡 감고, 고기 잡고, 썰매 타던 놀이 장소요. 어른들은 천렵을 하고 빨래를 하며 어울리던 공간. 하천은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 휴식과 만남, 놀이의 장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에게 강은 “어린 시절로 돌아 가고픈 마음이 향수(鄉愁)처럼 가슴 한 구석을 채운 채(홍성*)” 남아 있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그림(이성*)”이라고 말하게 한다.

2) 강에 대한 추억이 없다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산촌이나 도시인 경우에는 강에 대한 추억이 없을 수도 있다. 또는 강이 있었어도 어린 시절에 이동의 불편 등으

로 강을 접하지 못했거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강을 접했지만 강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 “강(하천)에서 놀았던 기억은 안타깝게도 없다.(고지*)” 그래서 강에 대한 추억도 없고, “산과 들은 티비에서나 보았(박아*)”을 뿐이다.

3) 금강트레킹 이전의 강과의 만남

가) 바라보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강

강의 이미지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시대와 개인이 부여한 의미화를 거쳐 존재의 가치가 주어진다. 때로 강은 나와 언제나 일정한 거리에서 자리해 있으며, 나의 삶과 무관한 강, 역사책이나 사회책 속에서 배웠던 강은 지식 속에서 존재할 뿐, 나의 삶과는 무관하기에 강은 바라보는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은 “저게 금강이래.”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최인*)이거나 차를 타고 지나가며 본 적은 많아도, 정작 오늘처럼 강변을 걸어 본 적은 없는(손장*) 그런 강으로 남게 된다. 비록 옆에 있더라도 강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지식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복권*)이거나 “그저 멋진 곳이거나 하며 지나쳤던 곳(최인*)”에 불과하게 된다.

나) 관심 밖이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강

근대화 이후 강은 쓰레기와 하수의 배출처로 여겨지면서 오염되었다. 도시화와 교통량의 증가로 강변도로를 개발하면서 접근성이 급격히 차단되었으며, 생활 속의 강,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 경관 속의 강, 맑고 수량이 풍부한 강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강에 실망하고 강을 멀리하면서 강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강의 이름을 잊어본 적도 많고(임대*)”, “강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인 적도 없고”(최인*), “어떤 사연을 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온 물인지 돌아볼 여유도 없고 사실 관심도 없다.”(신옥*)

다) 기능적으로만 인식하는 강

이제는 강에 관심을 가져도 실용적 가치로만 인식한다. 강은 인간이 개발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강을 수자원으로 인식하거나 사용한 물의 배출 처로서 인식하는 등 주로 이수와 치수적 기능으로서의 인식이 드러난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직도 내 주위에는 하천이나 수자원을 오직 개발의 대상, 인간만의 이용 대상으로 보는(정동*)” 사람들이 꽤 있고, 강은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물이 흘러가는 길일뿐(신욱*)”이다. 그래서 “돼지고기에 번개탄을 가지고 가서 돛자리 깔고서 고기나 구워먹다가 수풀 속에 살며시 쓰레기를 감추어 놓던지, 흐르는 강물에 발로 차서 증거인멸을 시키고 의기양양 흐뭇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던(김중*)” 기억과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훼손으로 다시 못 보게 될 지도 모르는 금강(한원*)”에 대한 염려가 함께 등장한다.

나. 여울에 관한 내용분석

금강 트레킹 참가자의 후기에서 강 체험 활동 가운데 양적·질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언급한 것은 여울 체험에 관한 것이었다. 여울 체험이 효과적인 체험 활동인 동시에 참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험 활동인 것도 후기를 통해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여울 건너기를 ‘금강 트레킹의 백미(박은*)’라 표현하면서 여울은 트레킹과 강에 본질에 접근하는 가장 적절한 체험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울이라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의미있는 경험으로 인식되고, 이 경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감정들이 의미있다 여겨 11가지로 구분하였다.

1) 여울은 두려움과 즐거움이 공존한다.

현대인들에게 강은 도로로 인해 단절된 공간이다, 따라서 바라보는 평면적인 대상이다. 바라보는 경관 속의 늘 흐르는 강은 어디가 알고 깊으며 어디에 어떤 생물종들이 살고 있는 지 가늠하기 힘들다. 역동적인 강에 대한 상상력

의 부재와 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맞닥뜨린 여울 건너기는 긴장과 두려움이 앞선다. 현대인에게 물을 건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불과 30~40년 전 만해도 다리가 없던 시절엔 물을 건너 학교를 가거나 장을 보러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늘 여울을 건너던 과거 사람들에게도 불어난 물 앞에서 물이 주는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다. 불규칙한 바닥 재질과 물살로 인해 넘어질 지 모르는 상황을 자기 조절로 이겨 나가면서 공포와 안심이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자연의 힘을 뚫고 나갔다는 만족과 성취와 정복감을 느끼게 된다. 여울체험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떤 영험한 세계에 들어서는 것처럼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감을 주었다(김경*)”거나 “물을 건너는 건 신나면서도 두려운 일(심현*)”이라고 회상한다.

2) 여울은 기분좋은 고통이다.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험 가운데, 긍정적 경험 못지않게 부정적 경험도 중요하다. 여기서 부정적 경험이란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는 경험을 말한다. 맨질맨질한 자갈 돌과 모난 돌이 혼재한 상태에 자신의 하중이 발바닥을 압박하면서 압점과 통점이 작용하여 압박감과 통증을 느낀다. 신발이라는 문명 속에 갇혀 있었던 현대인의 발바닥이 자연과의 원초적 만남 속에서 익숙지 않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경험이다. 여울 건너기에는 긴장과 스릴이 재미로 느껴지는 적교효과가 있다. 적교효과란 높은 지역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구름다리를 지날 때 스릴과 긴장감으로 가슴이 뛰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웃지 못 할 얼굴들을 보며 재미를 느낌으로 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분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두려움과 스릴감 속에서 다져진 관계는 더 친밀감이 돈독해진다. 참가자들은 “강 속 둥그런 돌들이 발바닥을 어찌나 자극하는지 매번 여울을 건널 때 마다 눈물이 찼끔 나온다(고지*)”고 고백하고 “산고의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는 해설가의 말씀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몸소 체험(김경*)”하면서 “아픈 발바닥에 살을 저미고 뺏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물

살이 더해져 잊지 못할 경험(복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고통은 “차라리 즐거운 고통(오승*)” 이어서 “힘들면서도 마주 보는 얼굴들이 행복한 표정(최인*)”을 발견하게 된다.

3) 여울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자유롭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강과 관련한 놀이는 강수욕과 친렵이었다. 그러나 강수욕은 해수욕 문화에 밀려 사라졌고, 친렵은 일단의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대중에게서 멀어져 갔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개발은 우리 고향의 산세와 물길마저 심하게 바꿔놓은 상태니, 옛 길과 여울은 잊힌 지 오래다. 유년에 강과의 추억에 물놀이와 친렵, 여울건너기 등이 있었다면, 강여울 건너기를 통해 유년을 회상하고 향수에 젖게 하는 경험이 될 것이다. 참가자들 역시 “어린 시절 시골에 물놀이하러 오던 생각(조수*)”이 떠오르면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박아*)” 즐거워한다.

4) 여울은 편안하다.

여울 주변에 산재한 다양한 강의 요소들 즉 버드나무 그늘, 모래밭, 자갈밭, 갈대밭, 습지 등은 그 생경함 속에서도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포근함을 준다. 이는 켈러트(2000)가 구분한 자연이 갖는 9가지 가치 가운데 자연의 물리적 매력과 호소력에 기반을 두는 미적 가치에 충실한 것으로 자연과 생물을 보면서 편안함과 친근감,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여울주변에서 인식하는 느낌은 맨발로 걸을 때의 폭신함, 포근함, 따뜻함. 고요와 평화, 맑고 고운 여울 물소리, 자연과의 동화 등의 언어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포근한 흙모래가 발바닥을 감싸니 강의 감미로운 품안으로 들어가는(조덕*)” 느낌이고 “맨발로 물길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면 세상이 내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처럼 황홀한 기분이 들 정도(손차*)”라고 찬양하기도 한다.

5) 여울은 중독성이 있다.

연속적인 경험을 통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

는 행위가 정겹게 느껴진다면, 이미 그 행위가 몸에 정리된 반성적 탐구를 통해 적응된 것을 의미하고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 다시 마주 하는 행위가 반갑게 느껴진다면,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될 수 있다. 바로 이차적 경험이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생태관광의 매력성은 자연 매력, 이용 편의, 접근성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 연구결과는 자연 자체의 매력과 함께 체험과 이용에 대한 편의는 생태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연구되고 있다(양승필과 박영대, 2010). 참가자들은 여울에는 매혹하는 그 무엇이 있으며, 횡수가 거듭될수록 신나는 마음이 커지고, 트레킹 구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 여울을 건너는 구간이라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몇 번의 여울을 마주치는 동안 점점 변해가는 나를(김경*)” 보고 “건너는 횡수가 거듭될수록 신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김승*)” 느끼면서 “오늘 이 순간을 많이 기다리게(손장*)” 되는 것이다.

6) 여울에는 생명이 있다.

여울은 수심이 얇거나 폭이 좁아서 유속이 빠르게 흐르는 부분으로써 물 흐름의 낙차에 의해 기포가 터지면서 물속에 산소가 대량 공급되는 곳이다. 산소가 풍부한 여울주변은 수서 곤충이나 부착조류가 많고, 물고기의 산란 처로서 최적의 환경을 갖는다. 따라서 산란한 알이 있고, 그 알을 먹이로 하는 다양한 생명체가 먹이 그물을 이루면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장소가 된다. 여울 주변의 둔치는 낮은 하상으로 인해 습지로서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자갈밭에서는 물떼새의 알, 초지에서는 고라니의 섭식흔적이나 발자국과 분변, 바윗돌 위나 모래밭에서는 수달의 똥과 발자국, 물웅덩이에서는 연가시, 돌망태나 흙길 제방 위에서는 몸을 말리는 뱀 등을 볼 수 있다. 참가자들 역시 이런 생물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전에 고라니는 나에게 연예인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는 옆집에 있는 친구 같은 존재(심현*)”로 느끼거나

“말로만 들던 생물종을 직접 눈으로 확인(최인*)” 한 것에 놀라워 한다.

7) 여울에서 자연의 순응을 배운다.

여울은 년중 항상 다른 수량과 유속을 갖고 있다. 때로는 한 때의 장마로 인해 물길이가 바뀌고 수위가 변동하는 등,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임을 느끼게 한다. 항상 갔던 길이지만 오늘은 다를 수 있고, 내일 또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연 그 자체만이 아는 물길과 유량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데는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

윤영일(1998)은 ‘장마 비로 물이 불은 내설악에 굉음과 함께 흘러가는 엄청난 양의 적갈색 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저물이 낙엽이 썩어 생긴 유기질 때문에 저런 색깔을 가진다는 등의 해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언젠가는 내설악에서 다른 방식의 자연 체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듯이, 여울 건너기는 바로 자연의 순리를 배우는 교육의 장소인 곳이다.

참가자들은 금강이 물길을 열어 주어야 하고, 참가자가 건너갈 수 있도록 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자연을 순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다른 곳과 달리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이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강 길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순응의 대상(이병*)”임을 확인한다.

8) 여울은 사람을 친밀하게 한다.

여울이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소통하게 해준 길이었다는 개념조차 없어진 상태에서 혼자 혹은 뜻한 바 없이 여울을 건넌다는 것은 무언가 범상한 행위라 여기게 된다. 여럿이 함께 어울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손에 손을 잡고 상대방을 믿어야 한다. 손을 잡음으로써 촉감을 매개로 한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이는 대상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스킨십은 피부 접촉을 통해 따뜻함과 신뢰감을 전하는 효과가 있어 마음을 열게 하고, 나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 맺기의 시작이 된다. 따라서 서로 협

동해서 건너자면, 손과 손을 맞잡아야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의지하고자 몸의 하중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달되는 육체적 접촉이 주는 친밀감의 강도는 더욱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다 같이 가기에 용기에 내어 손잡고 갈 수 있는 곳(고지*)”이라고 기록하고 “물길이가 생각보다 깊고 빨랐기 때문에 서로의 손을 잡으며 함께 여울을 건넜고, 어린 아이는 아버지 등 뒤에 찰싹 업혀서 여울을 건넜다. 차가운 물 위에 서로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조수*)”고 회상한다. 여울은 개인에게 있어서 신체와 정신이 성취해야 할 성취의 대상인 것이다.

9) 여울에서 옛사람들을 생각한다.

여울을 건너면서, 과거에 여울을 이용하던 강 주변마을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여울과 옛 사람들을 연결 짓는 장소감이 형성된다. 장소감이 형성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장소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실제적인 혹은 신화적인 의미 있는 사건과 결합되어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에 형성되고, 두 번째는 일상 생활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기억·의도를 통해 장소에 대한 애착의 증가로 형성된다. 후자의 경우는 동일한 공간적 위치에 대해서도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장소감은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 서로 다르며, 특히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형성되지 않는데 반해, 전자의 경우에 형성된 장소감은 일반적으로 그 장소에 가보지 않아도 그러한 장소감을 느낄 수 있다(김덕현, 1996). 따라서 지금 건너는 여울이 과거에도 사람들이 건넜고, 내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과거에도 느꼈을 것이라는 상상은 하나의 사건이 되어 여울이라는 곳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여름장마에 썩다리나 떼다리가 떠내려가면, 마을사람들은 또 힘을 합쳐 다리를 놓았다(최인*)”는 옛이야기를 떠올리고 “여울을 건너면서 옛날 선인들도 다리가 없으면 이렇게 건너다녔겠지(정명*)”라는 상상도 하게 된다.

10) 여울은 강을 알게 한다.

바라만 보던 강에서 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상물의 실체(본질)를 경험하는 것이다. 유속이 얼마나 빠른 지, 강바닥의 재질은 무엇인지, 강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 지, 수온은 어떤 지, 탁도는 어떤 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바라봤을 때의 강보다는 훨씬 본질적인 강을 이해하는 체험이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강을 유속을 느끼며 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성*)”이고 “울창한 숲길을 지나 맨발로 자갈밭도 걷고, 여울도 건너면서 자연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의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다.

11) 여울은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여울을 건너면서 집중과 몰입의 과정을 거치고, 자연과의 교감, 일치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자연에 반추함으로써 자아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감성에 소구하여 오감을 통해 자연과 사람 그리고 그 관계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자아 가치의 반성의 기회와 이를 창조적인 욕구의 실현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자연을 찾는 이유이며 생태여행인 걷기 여행을 선택한 동기 중 하나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거침없이 흘러가는 물살은 거침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유사하고, 젊고 모난 돌이 가득한 강변의 강은 젊은 강이라 내 인생은 돌아갈 수 없다 표현했다. 그들에게 “강은 젊었다. 강폭은 넓지 않고 바닥의 돌들은 굵고 더러는 모가 살아있다. 청춘의 강이다. 지나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먼 강. 나는 청춘으로 돌아갈 수 없(김승*)”고 “이제 65년 모진 인생길을 걸어왔으니 저 금강처럼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이상*)”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이용자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해설과 감수성증진을 위한 체험형 강길 걷기 프로그램인 금강 트레킹을 접목해 이용자들이 금강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의미 있는 강 체험 활동이 무엇인지 참가후기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 후기 분석 결과 여울이 다양한 길 가운데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울 건너기가 갖고 있는 인상적이고 복합적인 체험의 효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은 길 걷기 여행과 생태탐방로 조성, 강 체험 활동에 시사점을 주고자 했었고, 강의 심장인 <여울>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참가자들이 금강 트레킹을 통해 금강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강은 대체로 바라보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강에 부여하는 의미가 거의 없었다. 또는 수자원이어서와 친수공간과 오염물질 배출구로 인식하는 기능적인 강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금강 트레킹 참가자들이 강 체험활동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체험은 여울 체험이었고, 의미 있는 장소는 여울이었다. 참가자들은 여울 체험을 강 체험 활동의 백미로 꼽으면서 11가지의 경험 이미지를 통한 유의미한 감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 모두가 사고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이런 1차적 경험과 지속적이고 정리된 반성적 탐구를 통한 2차적 경험이 쌓여 경험은 성장하는 것이므로, 경험의 성장을 통해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활동인 것이다.

2. 제언

과거에 왕래수단이었던 여울이 근대화 이후 도로에 밀려 이용되지 않는다 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생명의 시원으로서의 여울의 가치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면서 기억 속에서 멀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 강의 속살을 허영계 드러내며 소요하던 여울이 하천 정비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

서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 트레킹에 접목된 해설 부분에 관해서 연구 결과를 크게 도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강 트레킹 참가자들은 여울 건너기 등 크고 작은 현장 상황에서 해설가들에 대한 깊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금강 트레킹이라는 강도 높은 체험 활동과 1인 다역을 하는 해설가간의 역학관계는 무엇인지, 강길 걷기나 이야기 길 걷기 등에서 필요로 하는 해설가의 유형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 전국도가 이야기 길의 춘추전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잠자고 있던 역사와 문화, 생태 자원들이 길을 브랜드화하는 테마로 깨어나고 있다. 이야기 길은 생태관광에서 걷기 여행의 발판이 되는 장소이고, 전국을 선형으로 있는 생태탐방로의 주요 자원들이다.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교육적 요소를 포함한 운영이 지속가능한 이야기 길과 걷기 여행을 담보할 수 있다. 이야기 길을 범람과 이용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우선 여울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인간과 물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은 강과 하천 정비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OO길’ 만들기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단순히 탐방로라는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평가,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야기 길>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환경교육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강숙영, 박시사, 홍영임(2007). 일본어 가이드북에 표현된 제주도의 이미지: 내용분석을

-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지**, 22(3), 259-279.
2. 강신겸 (1998). 생태관광 시설 및 활동 프로그램, **환경과 조경**, 9월호, 138-143.
3. 김덕현(1996). 장소성과 장소구축, **사회과학연구**, 14(1), 65.
4. 김성진 (2002).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본연구 2002, 3월. 44-69.
5. 나운중 (2000). Destination의 새로운 해석, **한국공원휴양학회지**, 2, 80-94.
6. 박석희 (1999). 나도 자연해설가가 될 수 있다, 서울: 백산출판사.
7. 박영아, 현용호 (2009).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심층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지**, 33(7), 77-93.
8. 박희주 (2005). **해설서비스가 관광객 만족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박희주 박석희 (2002). 종묘 방문자들의 관광자원해설효과분석, **한국공원휴양학회지**, 4(2), 120-129.
10. 엄서호 (1999). 관광지 해설가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연구, **경기대소성관광종합연구**, 43-57.
11. 오익근 (2000). 내용분석과 관광연구 활용, **관광학연구**, 24(1): 317-322.
12. 윤영일 (1998). 자연해설, 정보전달인가? 자연체험인가? **숲과 문화총서(6) 숲과 자연교육**, 220-230.
13. 이주희, 박정아 (2010). “체험경제” 이론을 활용한 생태탐방로 해설계획,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4(4), 61-71.
14. 정정욱 (2003). 걷기 형태가 에너지소비량 및 호흡 순환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5), 321-330.
15. 조진희, 김수봉, 김용범 (2004). 관광객의 환경의식이 생태관광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과학회지**, 13(1), 1-9.
16. 최영국, 임상연 (2005).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국토연구원.
17. 최인호 (20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충남발전연구원.

18. 허진숙, 이두곤 (2007). 유역 중심의 환경교육적 탐구-개념과 방법론, **2007 한국환경교육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30.
19. 환경부 (2008).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 환경부.
20. Aldridge, D. (1972). Upgrading Park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econd World Conference on National Park, Grand Teton National Park, Wyoming.
21. Amato, J. A. (2006). 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 : 깃털 없는 두 발 짐승, 인류가 내딛어온 6백만 년 걷기의 역사, **작가정신**, 2006, p. 105.
22. Choi, S., Lehto, X. & Morrison, A. M. (2007). Destination image representation on the web: Content analysis of Macau travel related websites, *Tourism Management*, 28(1), 115-129.
23. Moscardo, C. G. (1996). Mindful visitors: Heritage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376-397.
24. Moscardo, C. G. & Pearce, P. L. (1996). Historic them parks: An Australia experience in authenticity, *Annals of Travel Research*, 22(1), 67-85.
25. Sharpe, G. W. (1982). An overview of Interpretation. In Sharpe, Grant W. (Ed.) *Interpreting the Environ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6. Tilden, F. (1957). *Interpreting Our Heritage*. Chapel Hill, North Carolina, US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7. Veverka, J. A. (1994). *Interpretive Master Planning*. Helena, Montana, USA: Falcon Press Publishing Co., Inc.

2011년 12월 18일 접수
2011년 12월 29일 심사완료
2011년 12월 30일 게재확정